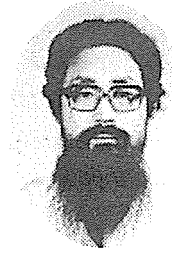


병원사목

이 문 주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

원목실장



I. 서론

병원에서의 현대 원목활동이란 한마디로 전 인치료를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사적 측면에서 교회가 어떻게 사목을 해왔느냐를 고찰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증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현대병원사목이라 해서 어떤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기 보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적응이 달라져야 했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을 성사 중심의 사목을 했다고 본다면 공의회 이후를 봉사중심의 사목으로 전향했듯이 병원 사목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을 성사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도 교회에서 인사조치를 한 흔적을 보아도 짐작이 갑니다. 병원 원목신부들은 대개가 연노한 분들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아 휴양겸 미사나 드리고 병자성사나 주며 봉성체나 대세 주는 정도로 족해 했던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는데 10년전에 성모병원에 원목신부로 부임해 갔을 때 직원들 사이에 하는 말이 '요즈음 젊은 신부가 원목 신부로

왔는데 좀 들지 않았어'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멸정한 사람이 왜 거기에 왔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인데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 전체가 봉사하는 교회로 바뀌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사목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였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병원사목자는 병원직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년전에 다시 성모병원 원목실에 왔을때는 '왜 새로운 원목신부는 안하던 일을 자꾸 하느냐'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콜롬비아호가 외계(外界)를 성공리에 들고 왔을때 세상의 이목은 그리로 집중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한만이 그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나게는 우주인 둘이 왕복선에 있었지만 이를 위해서 2000명 가량의 각종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각 분야 별로 team work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발사 당일엔 파테리나 컴퓨터 고장으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를 보아도 하나의 목

표를 위해 각 분야가 조화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는 어느 누구 하나의 능력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는 때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도자 상은 남과 더불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남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체가 균형잡혀 가는 공동체를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글은 주로 미국 병원 협회에서 발간된 'manual on hospital chaplaincy' 라는 책을 중심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은 1967년에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전 성모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책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일을 하면서 그나름대로 병원사목은 이렇게 해야하지 않겠나 했던 것입니다. 1979년에 다시 성모병원에 왔을 때 비로소 이책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읽은후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는 동, 서가 별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글의 내용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형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병원사목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 병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책이 나오기 까지 8년 동안이란 연구기간이 있었다는 것과 종파를 초월한 모든 교회기관과 의료계통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실제 그렇게 일이 되어 갈때 객관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I. 본 론

이책의 첫머리가 환자를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원목이 병원 구성인원 가운데 꼭 필요한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65년 이후 매년 원목상호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에 자유로운 정보교환과 공동문제에 대한 토의를 통해 병원사

목 프로그램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었으며 하나의 인간을 全人的으로 완전하게 치료하는데 원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차차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이미 원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의 재평가를 바라는 병원행정가나 아직 원목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의 실시를 위해 정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병원행정가에게 병원원목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행정가가 환자들의 종교적 요구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관심을 일깨워 주며, 병원이라는 조직속에서도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직원과 행정가들이 상호협조하도록 격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안에서 원목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는 병원 전체 조직, 행정, 병원운영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종교단체가 성직자들에게 원목교육을 시킬 자격과 책임을 갖고 있음에는 틀림없으나 병원당국도 임상사목 교육을 적절하게 발전시키는 데 참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이라는 교육과정이 유행이다 싶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상급학년에서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도자들이 이교육을 받고 교수직이나 행정직 보다 병원사목과 같은 특수 지역에서 Team을 짜서 사목에 힘쓰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성모병원 원목실에도 메리놀 신학생 한명이 사목 실습차 나와 있고 메리놀 평신도선교사 한 사람도 원목실에서 일하는데 이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사목을 위해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병원사업에 이다지도 끈덕져야 하느냐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1. 종교와 병원의 발전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의술과 종교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이 자연계를 초월하는 신비스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신의 노여움이나 악령들이 한 것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사제들은 건강과 복지의 보호자인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의술이 신비한 마술에서 분리된 것은 질병이 아닌 상처가 일정한 양상을 띄며 발생한다는 인식에서 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적어도 5000년전에 수술을 실시했다는 확증이 발견되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20세기 의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술에 과학적인 시도가 시작된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병원의 전신이 되는 그들의 사원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놀라운게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입상의학의 절차를 발전시켰습니다.

1) 초기 병원운동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병원들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 지역사회에 마련된 유일한 의료시설은 사원에 있었으며 시술자들은 사원에서 봉사하는 남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선사업가들은 가난한 순례자에게 모든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 주며 도움을 베풀고 사람의 조력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봉사를 위한 시설들이 아마도 오늘날 병원의 전신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들은 나병환자, 신체장애자, 맹인, 노인, 극빈환자를 위한 특수한 병원들을 설립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491년 병원 또는 환자 보호 수용소가 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젊은 의사들을 양성하는 병원으로써의 개념도 그 기원은 역시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7세기 조금 지나서 첫 시술을 실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교회와 몇몇 기관들이 고아와 노인과 환자의 관리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수도자들이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전쟁때나 전쟁후에도 병원 발달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병원은 십자군의 진로를 따라서 설립되었고 부상자들의 휴식처와 종교적인 영향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군병원들은 의학 지식과 기술, 간호와 관리절차의 개척지가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던 조직체들이 환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집단으로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모든 관리가 종교단체에만 맡겨졌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기의 유럽사회는 봉건제도에 의해 조직되어 졌으며 대체로 영주가 환자나 극빈자, 고아들에 대한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귀족이나 부유한 시민 그리고 자선단체에 병원건물들이 위촉되는 것은 당대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14세기 15세기 동안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군주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과 도시가 낡은 봉건적인 구조로부터 발달됨에 따라 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시민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병원도 종교적인 단체에 의해 운영되었고 교회는 환자와 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써의 관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2) 종교와 의학의 분리

19세기에 이르러 치료와 의학연구 분야에 과학적인 방법의 주요 원리들이 정립되었습니

다. 교회는 의료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들은 다른 선교사들을 따라 미개발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학이 더욱 정밀해짐에 따라 교회지원의 병원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이나 유럽대륙에서도 병원과 의료시설의 발달에 특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설립된 교회병원은 일차적으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치유자이신 하느님을 위한 기념비적 존재로부터 의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시설로서의 존재로 발전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널리 보급되자 교회자체내에서도 의학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실패한다면 교회는 환자를 위해 해줄 일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정서적인 증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됨에 따라 종교와 의학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종교적인 견해와 크게 다르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하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담당해온 역동적인 치료임무에 대한 신념은 거의 사라졌으며 성직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불치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국한 시키게 되었고 성직자의 방문은 환자들에게 공포심을 주었고 때로는 완쾌에 대한 희망을 감소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급박한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으며 의사들은 성직자의 방문이 환자에게 무슨 도움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환자앞에 성직자들을 오게하는 허가마저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3) 20세기 의학안에서의 종교

20세기에 이르러 심리학자들은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와 그의 태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새로운 견해에 입각해서 정서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신체의학의 이론이 탐구되어졌고

정신위생의 원리들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평가 증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종교계에서도 새로운 심리학적 이론의 몇몇 중요한 사용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사목자들이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더 이해하려는 시도를 가졌습니다.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발견의 몇가지를 그들의 교육철학에 포함시켰으며 의로계를 이끌어가는 개척자들은 환자를 위한 종교적 임무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의 종교사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재조정은 죄를 환자의 회복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태도에 있었다고 봅니다. 죄나 죄의 댓가가 직접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인 찬성이나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개인의 종교적인 신앙심과 그의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강화시켰습니다. 두가지 추세가 종교를 치유면에서 재인식하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첫째는 정신과 마음과 육신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심리학의 발달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무의식적인 정신계의 혼란이 자주 여러 종류의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질병의 어느 일면의 성공적인 치료는 다른 두가지 면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환자를 위한 사목의 중요성을 다시 자각했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평안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된것입니다. 이 두가지 추세는 20세기 동안 나란히 발전되어 왔고 병원과 이에 관련된 의료시설내에서 공동의 연구분야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분야에서 환자를 위한 종교 사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전하게 시도하므로써 공공단체의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고 조직적인 원목들의 훈련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학과 종교의 주된 흐름이 가까와짐에 따라 관심과 강조에 약간의 중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완전한 관리를 제공하기에 고심해 오던 건강관리 팀의 부분으로써 종교와 의학의 양 분야 대표들은 각 분야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 이해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함께 가장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조의 기회가 이뤄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현대병원 이외에는 있을 수 없겠습니다.

Ⅲ. 결 론

1. 현대병원과 원목

환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믿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환자가 병 때문에 허약해졌을 때라도 신앙심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신앙을 대변하는 원목의 역할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1) 환자의 전인치료

환자의 전인치료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강조하는 면과 그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학술적인 의료 기술면일 수도 있고 또는 현대 시설을 갖춘 종합의료원의 풍부한 의료품과 의학적 치료에 역점을 두거나 아니면 유능한 의사의 의료 기술에 역점을 두기도 합니다. 어느 면에다 역점을 둔다 하더라도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환자의 정신면을 다루는 것입니다. 환자의 정신면을 다룬다는 것은 최신의 의료시설 및 의료기술을 갖춘다는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정신면은 환자 자신의 영혼과 직결되는 세계로 여기에는 환자의 죽음에

대한 공포, 다시 말씀드리려서 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질병에서의 완치와 회복에 대한 환자의 염원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원이 환자의 전인치료에 힘을 때 그 병원은 환자의 완치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복리를 위하여 환자의 정신 세계와 신앙을 다룬다는 것은 환자치료에 있어 중요한 측면입니다.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면도 갖춘 존재이기에 전인적인 환자치료에 있어서 의료기술 이외의 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즉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측면의 신체 회복만이 아니라 환자의 사회적, 감성적,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인 면이 적인적 환자 치료를 위하여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2) 원목의 역할

전인적 환자치료에 있어 그 환자의 신앙 즉 정신생활을 다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목은 병원의 의료팀의 일원이 되어야겠다는 뜻입니다. 원목은 환자가 질병으로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감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병으로 유발되는 문제점들은 고도로 세분화되고 복잡적 기능으로 운영해 가는 병원내에서 자칫하면 환자가 겪게되는 소외와 대화의 두절 및 편파적이고 산발적인 관심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원목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환자 가족들의 고조된 근심과 투병으로 인한 경제 문제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의료팀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목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력자이지 의료팀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나 그 환자를 돌보는 의료팀을 위해서 원목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종의 근무자들과의 밀접한 연결을 맺고 일을 할때 병원사목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